

# ‘스트링 콰르텟’ 정교한 선율에 감동



지난 15일 서울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공연 중인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현악 4중주단'과 협연자 첼리스트 강민지(오른쪽 첫번째). <이건음악회 제공>

## 제 34회 이견음악회 리뷰

듀오, 트리오, 콰르텟, 관악, 타악, 건반악……. 클래식에는 수많은 오케스트레이션(관현악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현악 4중주를 의미하는 '스트링 콰르텟'은 악명 높다. 조그만 자극에도 천변만화하는 현악기들을 섬세하게 조율해야 하고, 악기 간 합도 정확히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현악 4중주단에는 국가나 도시 이름이 붙곤 한다. 예술가들이 함께 동지 뜰 곳에서 장기간 호흡을 맞춰야만 완벽한 연주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7일 저녁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 '제34회 이견음악회'는 현악기들의 정교한 선율과 하모니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였다. 건축자재 전문기업 이견(대표 박승준, 안기명)이 1990년부터 지역 문화예술포럼을 목표로 34년째 진행하고 있는 클래식 연주회로 광주일보사가 후원하고 있다.

독일에 터를 잡은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현악 4중주단은 2016년부터 수석 바이올리니스트 볼프람 브란들을 중심으로 리반 주(제2바이올린), 유스트

## 클래식 연주회 성료...광주일보 후원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현악 4중주단 드뷔시·하이든·슈베르트 곡 울려 퍼져

카이저(비올라), 클라우디우스 포프(첼로)가 함께 결성한 스트링 콰르텟이다.

450년 전통의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오케스트라에서 현악파트 연주자들로 구성된 이들은 현악 합주의 모미를 선사했다.

먼저 드뷔시 곡 '현악 4중주 G단조 Op.10'이 막을 열었다. 드뷔시가 생전 남긴 단 한 곡의 현악 사중주 작품으로 초연 당시에는 정중, 평론가에게 혹평을 받았지만 20세기에 이르러서야 그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이다. 활달하고 리드미컬한 연주는 감동 그 자체였다.

네 연주자가 함께 선보이는 피치카토(pizzicato) 주법은 압권.찰현악기(撥絃樂器)임에도 활을 사용하지 않고 현을 손가락으로 튕겨 연주하는 기법인데, 탄현악(彈絃樂)으로도 불린다. 절묘한 리듬감을 요구하는 악곡은 높은 연주 난이도를 필요로 한다.

관객들은 화려한 박자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며 '현의 노래'에 동참했다.

아울러 연주자들은 활을 켜듯 부드럽게 연주하는 아르코(arco) 주법도 새롭게 해석했다. 비올라 연주자 유스트 카이저는 비올라의 활을 깃발이나 창을 휘두르듯 흔들었는데, 사운드-퍼포먼스 두 측면에서 인상적이었다. 피치카토와 아르코 주법을 오가는 숙련된 장면은 관객들로 하여금 클래식의 세계에 몰입하게 했다.

이외에도 '콰르텟'을 처음 명명한 하이든의 악곡 '현악 4중주 F단조 Op.20 5번'도 울려 퍼졌다. 작품 번호 '20번'에 속하는 총 여섯 곡은 하이든에게 현악 4중주의 기수라는 명성을 준 장본인. 이들에 걸맞은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을 수 있었다.

피날레는 슈베르트가 작곡한 마지막 실내악곡 '현악 5중주 C장조 D956'이 장식했다. 빠르게-느리게 템포를 오가며 변주되는 악상은 신선한 호흡으로 관객들에게 다가왔다.

물론 이날 공연장에 울려 퍼진 클래식 레퍼토리에 는 가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묵연의 음계들은 아름다운 소리로 가을밤을 수놓았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희망의 씨앗 품은 춤추는 해바라기

박유자 개인전... 11월 3일까지 북구 자미갤러리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시간, 다채로운 꽃들이 들뜰을 수놓는다. 가을을 대표하는 꽃은 단연 코스모스다. 작은 꽃들이 주는 오묘조밀한 조형감과 향기에 매력을 느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석양이 비치는 들녘에 쓸쓸이 서 있는 해바라기가 주는 정취를 좋아한다.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는 해바라기는 커다란 키 탓에 특유의 아우라를 선사한다. 말쑥이 떨어 서 서 있는 자체만으로도 해바라기는 존재감을 드러낸다.



'사랑합니다-희망'

박유자 작가가 스물 한 번째 개인전을 연다. 오는 11월 3일까지 북구 자미갤러리.

작가의 트레이드마크인 해바라기가 이번에도 화폭을 장식했다. 해마다 다른 컨셉의 해바라기를 그려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는 춤추는 해바라기를 초점화했다. 작품은 모두 26점.

가을이 오면 무수히 많은 씨앗을 품은 채 고개를 숙이는 해바라기. 그러나 춤을 추는 해바라기는 보는 이에게 자유와 편안함을 선사한다. 너울너울 흔들리는 자태만으로도 카타르시스를 선사하기도 한다. 아마도 그림을 그린 작가의 내면 또한 무언가의 애매함으로부터 놓여났는지 모른다.

박 작가가 처음 해바라기에 관심을 가진 것은 지난 2009년이었다. 매년 버전을 달리하며 그려온 해바라기는 그다지 '이쁘지' 않았다.

다른 작가들은 일반적인 부와 명예의 상징으로 그렸는데, 박 작가는 어둡고 무서운 모습으로 형상화했다. 이후 조형성을 가미한 그림은 점차 '박유자표' 해바라기로 탄생하기에

이르렀고, 작가에게는 '해바라기 화가'라는 닉네임이 붙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정 형태에 갇혀 있지 않고 출렁거리며 변화를 거듭하는 해바라기를 만날 수 있다. 역동적인 움직임은 단순한 흐느적거림을 넘어 자유의 몸짓으로 다가온다. 보는 이에게도 담담하면서도 활기찬 감을 느끼게 한다. 생의 의지가 발현된, 창작활동에 임하는 작가의 내적 변화로 읽히기도 한다.

한편 박 작가는 "해바라기가 단순해지고 담배해진 것은 마음을 내려놓아서 그런 것 같다"며 "어느 날 문득 태양을 쫓아 위로 한없이 자라난 희망처럼, 울여름 내내 해바라기와 춤을 추며 그렇게 살았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동구 인문학당,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동구 인문학당

동구 인문학당은 약 87년 전 지어진 고택을 리모델링한 가옥이다. 서양식과 일본식, 한식이 혼재한 독특한 양식의 주택으로 평가받았다. 당시 고급 주택에 들어가는 목재인 소금에 찌서 말린 목재로 지어졌고, 건물의 곳곳에 공예나 쓰인 자재들이 다수 확인됐다.

특히 오른쪽은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지어져 근대문화유산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 동구의 '동구 인문학당'이 '2023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상(대통령상)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건축가협회는 옛 가옥에서 시민을 위한 인문거점공간으로 재탄생한 동구의 '동구 인문학당'을 '2023 대한민국 공간문화대

상' 대상에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생활공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수여해왔다.

대상(대통령상)으로 선정된 '동구 인문학당'은 원래는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매입됐으나,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의 보존 요구를 수용해 시민을 위한 인문·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심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5일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ACC '하늬풍경' 테마 강좌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열리고 있는 '하늬풍경' (11월 19일까지)은 환경과 지구의 다양한 해석을 매개로 자연과 기후 등을 사유해볼 수 있는 이색적인 기획전시다.

이번 전시와 연계된 테마 강좌가 시민을 찾았다.

19일에는 작가의 작품세계와 창작방식을 경험하는 '작가와 함께하는 창작활동'이 예정돼 있다. 김하늘 디자이너가 '버려지는 것들'을 토대로 작품의 소재 활용 가능성과 그 과정 등을 시민과 공유한다.

친환경적 건물을 구현하는 건축가의 생각과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시간도 있다.

오는 11월 7일엔 양수인 건축가의 건축에 관한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자리다. 양 건축가는 건물의 무게가 공기, 비용, 폐기물 등 여러 차원에서 친환경적인 건물을 구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을 견지한다.

이강현 전당장은 "전시와 연계한 이번 프로그램은 환경 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학적 실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강연, 작가와의 만남 등을 통해 오늘의 시대 화두로 대두된 지구와 환경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참가신청은 ACC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의 아버지 오방 최흥종' 공연

오방기념사업회, 21일 오방최흥종기념관 하늘정원

나눔을 실천했던 '오방 최흥종'은 광주의 기독교 첫 장로로 종교를 초월해 추앙받는 인물이다.

(사)오방기념사업회(이사장 최영관)와 광주YMCA(이사장 강행욱)는 오방 최흥종의 일대기와 시대상을 담아낸 '광주의 아버지 오방 최흥종'을 오는 21일(오후 4시) 오방최흥종기념관 하늘정원에서 연다.

공연은 양림축제 기간과 맞물려 21일 하루 동안 선보인다. 최흥종의 삶을 마음음악, 연극으로 표현한 뒤 저마다 음식을 가져와 나누는 포트락 파티까지 진행해 오방이 실천한 '나눔'의 가치를 축제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행사 서막은 '사의 찬미', '오방'이 연다. 우리나라 최초 성악가인 윤심덕은 조선총독부 관비 유학생으로 발탁됐는데, 일본에서 귀국하던 도중 행방불명이 됐다. 이후 윤심덕을 모티브로 한 서사와 러브스토리가 결집되어 SBS 드라마, 희곡작품 등으로 각색됐다.

또 '오방(五放)'은 최흥종의 아호와 동명의



오방 최흥종. <광주일보 DB>

곡으로 방만(放曼), 방일(放逸), 방종(放縱), 방기(放棄), 방랑(放浪) 등 다섯 집작을 펼쳐내는 내용을 담았다.

남구정 등이 들려주는 '황성옛터', 광주YMCA 등의 '눈물젖은 두만강' 등도 감상할 수 있다. 이와 공연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퍼포먼스 공연 '화광동진', '풍물 앞놀이'도 펼쳐진다.

오방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이번 음악회에는 다음 세대의 독립을 위해,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해 앞장섰던 최흥종의 시대정신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